

# “허망하게 가족 잃는 비극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 ‘학동참사’ 4주기

(하)안전 사회 위원

유가족협 동구청사서 추모식  
재난참사피해자연대도 참석  
야7당 ‘생명안전기본법’ 촉구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 보내는 비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4주기를 맞은 9일 유가족들과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로 ‘안전 사회’ 구축을 호소했다.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동구청 앞 주차장에서 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4·16 합창단의 추모 공연으로 시작된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년 전 참사가 발생했던 오후 4시 2분이 되자 눈을 감고 묵념하며 세상을 떠난 9명의 피해자들을 애도했다.

붉게 충혈된 채로 감았던 눈을 뜬 유가족들은 떠나보낸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명패 앞에 흰 국화꽃을 올렸다. 헌화 후 이진희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우리는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는 누구도 같은 비극을 겪지 않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4주기를 맞은 9일 오후 동구청 광장에서 추모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싸워왔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 약속한 것으로 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이 공동대표는 어머니를 향한 편지를 낭독하며 “보다 나은 세

상을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마지막 숨 하나를 기억하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추모사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2·18 대구지하철화재 등 또 다른 참사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생명안전기본

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기업의 책임 명확화, 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20년 11월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뒤이어 추모의 말을 전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이 가슴 깊이 다가온다”며 “광주시도 늘 그런 마음으로 참사의 날을 잊지 않고 안전과 생명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옥철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추모사업, 긴급 구호 지원 제도 개선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앞으로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는 광주시가 품지 못한 유가족의 아픔을 스스로 품고 재난과 참사로 고통 받는 이웃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모식에 앞서 오후 1시 야7당(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나무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국민주권당)의 광주시당은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동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은 반복되는 항소와 가처분으로 더 이상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줘선 안된다”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사법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참사의 재발을 막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은정 기자

# “더블스타, 금타 화재 대응에 적극 나서야”

박병규 광산구청장 송정역서 1인 시위  
민노총 광주본부 등 ‘시민대책위’ 발족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대주주 더블스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 청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광주송정역 앞에서 약 30분간 더블스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

이번 시위는 지난달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더블스타 측이 공식 사과나 노동자 고용 보장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박 청장은 ‘금호타이어 대주주 더블스타는 노동자 고용보장과 공장 이전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경영진의 공식 사과 및 입장 표명 ▲화재 대응 관련 복구·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및 안전 투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의 책임회피나 무성의한 대응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민노총 광주본부는 같은 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불거진 고용·경제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광주본부의 제안으로 꾸려진 시민대책위는 금호타이어 노조, 광주시민단체연합,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박근혜(광산갑) 국회의원의원실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대책위는 향후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정상화 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위기지역 지정·법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요구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옥근 기자

# 경찰, 처자식 살해 40대 가장 수사 마무리 수순

두 아들 ‘살인’·부인 ‘자살방조’ 혐의  
임금 체불 조사·채무 등 부담 범행  
내일 구속 송치...추가공범 파악 계속

가족여행을 가장해 떠난 여행지에서 처자식을 살해한 40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진도항 일가족 살해 사건’ 관련 언론 간담회를 진행했다.

북부경찰은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차를 몰다가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에 빠져 두 아들을 죽게(살인)하고 아내를 숨지게 내버려 둔(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된 지모(49)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설명했다.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지씨는 ‘작업 반장’ 성격의 건설 노동자였다.

별도 회사를 꾸린 건 아니었지만, 인부들에게 주는 일당은 지씨가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와 관련, 지씨는 지난 2월 노동 당국으로부터 3천만원가량의 ‘임금 체불’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지씨는 경찰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구속될 경우 처자식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과 아내가 2억원 상당의 채무도 압박감을 더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10년 가까이 조울증을 앓던 아내가 생을 이어가는 게 힘들다고 토로하자 지씨는 이번 범행을 함께 계획했고 실행했다.

두 아들을 살해한 데 대해 지씨는 “빛 독촉에 힘들까봐 그랬다.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1일께 지씨를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해상에 빠진 지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이어가며 추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